



제목	Holistic Islam: Sufism, Transformation, and the Needs of Our Time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White Cloud Press
발행일	2017. 9. 12.
저자	Kabir Helminski
출판도시	Ashland
페이지수	168
ISBN 또는 ISSN	978-1940468556

내용 요약

크리스토퍼 도슨은 『유럽의 형성』서문에서 서양 중세에 대해 “내가 선택한 시대는 서양 문명이 인접한 동양의 위대한 문명보다 분명 열등했던 시대, 외면적으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줄 만한 화려함은 전혀 없는 시대였다.”고 슬회한다. ‘유럽의 형성’ 시기인 7세기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창설하고 아라비아 반도 전역이 이슬람화 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 책의 저자는 조로아스터교, 불교, 기독교 등 기존 세계적인 종교에 비해 역사도 짧고, 한때의 영광과 명성이 서구의 근대화 물결에 밀려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진 이슬람교가 종교적인 다양성, 양심의 자유, 과학적 사고를 존중하는 위대한 문명을 낳았고 이슬람 지식이 유럽 르네상스 탄생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책의 저자는 오늘날 세계가 신념이 아닌 경험에 기초하고 인간의 경험과 영적 진리를 신조나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조화롭게 합일할 수 있는 ‘시대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정신’을 잘 반영하고 실천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이슬람교가 적합하다고 피력하면서 무슬림들이 신과의 합일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종교적인 의례와 영적 전통을 다양하게 소개한다.

이 책의 저자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부정적, 극단적으로 부상하는 이슬람 전체주의와 아프가니스탄 발호와 터키 콘야 출신 루미와의 상관관계이다. 이슬람교도들이 이슬람을 신봉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가운데 이슬람 전체주의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슬람교는 기피와 공포의 대상이다. 반면 루미는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 있는 페르시아 수피시인이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현상을 예의주시하면서 헬민스키는 이슬람 전통에서 위대한 수피 교사들이 어떻게 보편적인 지혜로 가는 지를 보여준다.